믿음을 엷게 하는 ‘크게 보기 중독’

(역대하 20:14~19)

14.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맛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15.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6.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17.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18.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19.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믿음을 엷게 하는 ‘크게 보기 중독’>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믿음을 엷게 하는 ‘크게 보기 중독’

우리의 믿음을 엷어지게 만드는 중독이 하나 있습니다. 크게 보는 중독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말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이 크게 보는 중독은 크게 보지 않으면 살이 떨리고 마음이 불안정해집니다. 이 중독은 이상하게도 후천적으로 취득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이 중독된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갖고 태어난 것이면 중독이 아닌 체질일 텐데 굳이 중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끊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크게 본다는 것일까요?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삼라만상이 있고 정해놓으신 크기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들의 중요성 또한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실제크기나 중

요성보다도 더 크게 보고 크게 느끼려는 중독에 걸려있습니다. 그것을 체질로 오해할 만큼 중독에 걸려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삼라만상의 크기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크기대로 보지 않고 확대해서 보는 동안에 우리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엷어지고 생명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면서 오감으로 포착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하나님이 본래 정해놓으신 실제 크기보다 크게 보게 될 때에 믿음은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는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의 금식기도가 있었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의 대규모 연합군이 이 작은 유다 나라에 침공하기 직전인데 여호사밧 왕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 금식의 목표는 연합군의 침공에서 지켜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사밧 왕의 신앙의 여정을 염두에 둔다면 이 금식기도의 목표는 당면한 현실에서 죽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적들의 침공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금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제까지의 사건을 통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늘의 흐름이 들어오므로 동서남북으로 밀고 나가면서 외연도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의 침공보다도 하나님 보는 것을 우선하기 위해 삶의 현장을 등지는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자 응답이 주어지게 됩니다.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첫머리가 15절의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표현은 우리가 많이 접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시고 9절에서도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31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라고 하시는데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인지상정의 차원에서 생각할 때 대규모의 연합군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몰려와서 작은 나라인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몸을 죽일 수도 있고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을 죽이려

고 하는 자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금식을 하면서 연합군의 침공에 압도되었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보기를 원하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보게 된다'라는 의미는 '내가 너희를 업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연합군의 침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느끼고 판단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입장에서는 적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크기대로 보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느낌대로 느끼며 하나님의 판단대로 판단할 때에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때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 건강 인간관계 자식문제 등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하시니 구경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놀라움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데, 이 두려움과 놀라움은 일련의 발생과정을 거침으로서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크게 보는 중독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놀라움만 없애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금식을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문제를 보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금식은 입으로 부르는 하나님을 마음으로도 보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일 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만 하면 되는 것인데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생기는 과정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크기보다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요즘 웬만한 교회들은 스크린이나 대형모니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찍어서 벽에 걸린 큰 스크린이나 대형모니터에 띄우는 것입니다. 큰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보면 작게 보이지만 대형 스크린에는 아주 큰 영상으로 보입니다. 자연히 눈이 실제 목사님에게는 가지 않고 대형스크린을 향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비유로 두려움이 생기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사이즈에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우리가 육체로 살면서 오감으로 접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마음과 주의를 집중하게 만드는 관심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 마음의 스크린과 모니터에 관심의 카메라로 찍어서 영상처럼 띄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을 마음의 스크린

에 띄우게 되면 실제 크기와는 상관없이 그것들을 하나님 사이즈로 느끼게 됩니다. 그것들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것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관심의 카메라를 통해 마음의 스크린에 하나님 사이즈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이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무한한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이들의 크기와 중요성과 위력은 티끌 같을 뿐입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크기대로 적들을 보지 못한 채, 마음의 스크린에 그들을 하나님의 크기로 띄워버렸던 것인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개미 한 마리를 스크린에 띄우는 것과 같습니다. 스크린에 꽉 차 있는 개미가 입을 쫙 벌려봐야 실제 크기는 개미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개미 같은 문제를 마음의 스크린에 띄울 때에 실제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거대하게 느껴지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는 발로 밟아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 마음의 영상에 띄워 놓고 보면 하나님 사이즈에 맞게 만들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만나는 것들의 실제 크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무엇이 크겠습니까? 로키 산맥이나 나이야가라 폭포, 이구아수 폭포 앞에서 어마어마한 위압감을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러실까요? 지구 전체를 다 한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실제 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연합함으로서 이구아수폭포나 침공한 연합군을 티끌처럼 느끼는 하나님의 느낌대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느끼시는 대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세상을 등져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내 등 뒤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읽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보잘 것 없게 여기신다면 나도 보잘 것 없게 여기는 것이고, 반대로 사회적으로 아무 지위도 없는 보잘 것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여기신다면 나도 그를 크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이 생기는 원리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다른 감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이즈는 하나님만 들어가셔야 합니다. 내 애인이 아무리 소중하고 내 인생에서 큰 존재로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사이즈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스크린에 내 애인을 띄운다면 애인이 하나님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러한 크게 보기 중독이 믿음을 없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관심의 카메라가 담아서 마음에 띄울 때에 하나님 크기가 됩니다. 마음 크기의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확대해서 띄워지는 것들로 인해 하나님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돈에 관심을 가진다면 마음에서는 돈이 하나님 크기로 보이며 하나님을 대체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토록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소중한 것이지 돈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돈은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인도 그렇습니다. 한창 열애중일 때에는 애인이 하나님 사이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혼해놓고 3년 뒤에는 이혼합니다. 이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소리도 듣기 싫고 먹는 것도 꼴 보기 싫을 정도로 미움의 대상으로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미움이 작다면 이혼하지 않고 살 수 있겠지요. 옷에 얼룩 하나 묻었다고 버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의 좋아함과 미워함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두려움으로 대표 된 크게 보기 중독현상만 없앤다면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대해 가지는 관심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대상은 관심의 카메라가 담을 때에 하나님의 크기처럼 마음의 모니터에 비쳐지면서 좋거나 싫게 여겨집니다. 두렵거나 하찮게 여길 때에도 그렇게 크게 작용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스스로 속는 것이고 거짓된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 관심이 생기면 관심을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하늘을 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를 붙잡은 채로 하나님을 마음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조르듯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에서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등 뒤에서 일어나는 세상일은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을 앞만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뒤에도 눈이 있다면 앞으로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뒤로는 세상을 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에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세상일에서 손 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세상에서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장갑으로 끼시고 일하실 뿐입니다. 그 일들을 장갑이 해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육체로 만나는 것들을 관심의 카메라가 찍는 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뿐입니다. 이것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전쟁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보기, 사업이 잘 안 될 때에도 하나님 보기, 자식이 말썽을 피울 때에도 하나님 보기,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 보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에 대해서는 구경만 하는 것입니다. 크게 보기의 중독을 십자가 생활화로 끊어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죽음으로서 크게 보기 중독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